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대각국사 의천 ①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의천의 입송구법은, 송나라에 그가 입국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고려와 송 그리고 거란의 3국 외교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3국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불교전적의 수집이라는 애초의 목적이 아니라, 불교전적을 수집하기 위한 그의 행보가 낳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의천이 입송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당시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던 송나라의 문물과 고려불교의 원천이었던 중국의 불교를 직접 접하고 싶어서 당시 송나라의 화엄학 대가였던 정원(淨源; 1011~1088)의 초청에 응해 화엄대교를 더 폭넓게 배우고 싶었던 이유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고려에서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으로부터 고려로의 대장경 수입은, 초기부터 고려가 사신을 통해 요청하고 송이 이에 대응하여 기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송의 <개보적판대장경(開寶勅版大藏經)>이 983년에 완성된 이래 1022년까지 일곱 차례 정도가 확인된다. 그 중 반 이상은 고려 사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그나마 다양한 판본을 구한다

거나 승려들의 저술 곧 주석서류의 교송(敎誦)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송의 서적 수출 금지령 때문이었는데, 당시 거란·고려·송으로 얽힌 삼국의 정세에서 점차 수세로 물리게 된 송으로서의 국방상의 보호를 국내 상황과 관련되는 자료가 적인 거란과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고려의 손에 들어가 변방에 위협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은 민간에서의 전사(傳寫)와 조인(調印)까지 금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조인(調印)이 적지 않게 이루어질 정도였다. 송의 불교전적을 구하기 위한 고려 혹은 의천의 노력에 적잖은 장애로 작용했던 듯하다. 또 삼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와 송의 외교적 접근을 거란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 역시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장경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한 상황에서, 의천이 요와 송의 전적들을 일장(一藏)으로 모아 유통하기를 발원한 것이 19세 때였던 1073년이었다. 그러나 의천의 오랜 바람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입송(入宋)하던 1085년 무렵까지도 의천은 만족할 만큼 교장을 수집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송구법은 여러 종파의 장소(章

불교전적 수집 위해 입송(入宋)한 의천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보물 제189호) 팔공산 골자락에 자리하는 송림사는 신라 진흥왕 때인 544년 창건하고, 고려 선종 때인 1092년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중창됐다.

疏)를 구하려는 의천이 본인의 굳은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고려·송·요 삼국 간의 미묘한 정세에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의천의 입송구법 요청을 고려조정에서 여러 차례 거부한 것도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들을 도외시한 의천의 이 무모한 결단은, 교장을 간행하려는 의천 본래의 의도에서 보든, 이후 고려 조정(왕실)과 의천이 동일한 행보를 걷게 되는 외교적 행위로서 보든,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 같은 점 때문인지 의천 당시에 고려와 송을 왕래했던

고려의 사신단 혹은 고려 조정이나 의천의 의뢰를 받은 송의 상인들이 불교전적을 송에 공급했던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반면 고려와 요를 왕래했던 쌍방의 사신단은 양국의 장소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사례가 발견된다.

여하튼 11세기 중반 무렵부터 12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고려 조정에서는 교장을 통한 외교 공사가 지닌 효용성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126년,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을 주동으로 한 고려의 사신들이 사명(四明, 오늘날의 영과 지역) 연경사(延慶寺)의 범광(梵光; 1064~1143)을 방문해 범의(法衣) 1점과 원효가 찬술한 논소(論疏) 200권을 전하여 중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고려인들이 의천의 사후에도 한동안 고려 교장에 포함된 불교전적들을 외교관계에 활용할 정도로 고려불교가 동아시아 세계에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려불교 전성기의 중심에 대각국사 의천이 서 있었던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중세 계율 부흥의 주창자 해탈상인(解脫上人) 조케이(貞慶) ①

남도 불교 부흥을 꿈꾸다

당시는 남도의 구족계와 천태의 법화원동계가 서로 승렬을 주장하기도 했다. 조케이는 이에 대해 설사 보살이라고 하여도 먼저 비구계를 받아 비구중(比丘衆)에 속하고 난 뒤, 그 위에 보살계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천태의 승려들은 계상(戒相)에 어두워 남도의 비구계를 받지 않으면 비구승이 아닌 재가인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남도 계율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원래 율종의 근거지였던 흥복사를 중심으로 한 남도 불교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케이는 이처럼 단지 불교의 쇠퇴를 바라보고만 있던 은둔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성찰하고 견인불발의 의지로 불법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우미발심집(愚迷發心集)>을 통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범부로서 어리석은 무명 가운데에 해매는 자



석가여래 좌상, 12세기 작, 코후쿠지 소장

용화회를 열어 미륵신앙 고양
카이쥬센지서는 관음신앙 매진

신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신불의 가르침으로 도심을 향해 불도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삼가 시방세계 일체의 삼보, 일본국 가운데 대소 천신지신 등에게 아뢰기 위해 제자는 5경(새벽 3~5시)에 잠에서 깨어나 적막한 마루 위에서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고품이 생가에 엇섭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저 무시의 율화 이후 여기서 죽어 저곳에 태어나는 순간, 어느 때는 영원히 3도8년의 악취에 떨어져 고통에 몸부림치는 중에 이미 발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가끔 5계를 지녀 인도(人道)에 태어나는 선과를 느끼지만 전도몽상으로 아직 해탈의 씨앗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쁨이 함께 합니다. 나루가 소매에 젖어 넘치는 중 삼보에 아뢰입니다. 이 계약으로 금생은 무명이 끝나는 저녁이 되며, 미래는 각종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뜻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퇴굴심이 나서 세간에 걸리고 무상의 도심에 태만할 때는 이 서원문을 생가 벽에 보고

잘 지켜 이 마음을 격려할 것입니다. 이 서원을 따르지 않다면 영원히 본의를 잃고 왕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모든 불자들이 자신과 함께 발심·서원하여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는 불도를 걷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케이는 또한 <용화회원문(龍華會願文)>을 짓고 용화회를 열어 미륵신앙을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로부터 의탁받았다고 한다. 미륵강식(講式)을 비롯해 지장·관음 강식을 지어 이들 신앙을 더욱 고취시켰다. 미륵불은 말세의 중생을 구제하도록 석가모니로부터 의탁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자연히 석가에 대한 신앙심도 발전되어 석가염불회를 열고, 불사리를 안치하여 이를 숭배하는 등 석가모니에 대한 추모의 정이 깊어져 갔다. 54세 때에는 카이쥬센지로 옮겨 관음신앙에도 매진했다. <불사리관음대사발원문>을 지어 부처님의 사리에 예배함으로써 불과를 얻음과 동시에 관음의 신주를 외움으로써 4근본죄를 멸제하고 목숨이 마칠 때에는 그대로 보타락산에 태어나기를 발원했다.

그는 미륵·석가·관음의 3존은 일체라는 신앙을 고수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의 다양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불법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만큼 조케이의 시대는 신불교의 탄생만큼이나 전통 불교에 대한 회귀 열망도 강렬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최연
불교사학연구원 원장

홍파 스님 자백하면 최연은 간첩 됐다

민중불교운동에 불을 지피다

「사원화운동」으로 최연과 범우 스님만 검거된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한 홍파 스님 역시 연행되어 고초를 겪어야 했다. 대불련 선배인 홍파 스님은 최연의 부락으로 묘각사를 중심으로 야학운동을 위한 장소 이용을 허락했다. 홍파 스님은 본래부터 진보적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이 묘각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흔쾌히 수용했다. 이때문에 홍파 스님은 야학활동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 홍파 스님은 장소만 제공했을 뿐인데 수사당국은 활동자금도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만일 홍파 스님이 돈을 대겠다고 자백한다면 최연 등은 간첩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었다.

“대불련 후배들 다 잡혀가고 서울에서도 후배들 다 잡혀 대불련 애들도 다 잡혀

가고 조사받고 나가고 조사받고 나가고 구속은 세 명이 됐지만. 그래서 홍파 스님도 고생을 하고 부산에 있는 그 대불련 개들도 우리 고기 야학 시작할라 그랬으니까 거기도 잡혀가서 전부 대공분실 그 다음에 전주 서울 세 곳에서 잡혀가가지고 조사 받고 대공분실에 인제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그 홍파 스님하고 우리 세 명하고 그렇게 해가 됐는데 홍파 스님이 끝까지 고문 속에서도 돈은 뭐 대준 게 없었어...”

최연의 구술에 따르면 불교야학운동은 서울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부산과 전주 등 여러 곳에서 거점이 있었다. 야학연합회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문제나 농민들의 현실문제에 개입했음을 알게 한다. 야학 운동의 배경 역시 최연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된다. 1975년 대불련 기획국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조사국을 적극 지원한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의식과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양계 이트를 시도했고 이를 토대로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다. 이듬해 대불련 회장이 된 최연은 전북 송광사 여름 수련대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고 ‘민중불교이론’을 정립하게 된다. 그러한 역량이 80년대 초 대불련 중심의 야학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불련이 야학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대불련 회원들이었다. 묘각사 뿐만 아니라 청와대 옆에 위치한 칠보사와 안암동의 개운사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성격의 불교운동이 있었다.

“주도를 대불련 출신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칠보사 팀이 있다는 게 칠보사팀이예요. 그리고 개운사가 생겼는데 개운사는 인제 묘각사가 이렇게 하니까 어 자기들도 어떤 실천적인 뭐를 하나를 만들어서 단위를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일차적으로 사찰에 모였어요. 개운사에 그대 고대(고려대학교) 중심이예요. 고대가 개운사에 가깝잖아요.”



칠보사

최연이 일으킨 묘각사 야학운동보다 먼저 이론적 검토를 시도한 곳이 칠보사 학생모임이었다고 구술한다. 칠보사팀에서 이희선이 활동했고 당시 신장진(현 국회의원)은 야학운동과 관련돼 있었다.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쬐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뱉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때는 손가락으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용 염주를 통과시킨 뒤 줄에 매듭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헝겊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